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②	17. ④	18. ⑤	19. ③	20. ④
21. ①	22. ①	23. ⑤	24. ②	25. ①	26. ⑤	27. ③	28. ④	29. ③	30. ①
31. ③	32. ⑤	33. ①	34. ②	35. ②	36. ③	37. ⑤	38. ④	39. ③	40. ③
41. ③	42. ④	43. ②	44. ①	45. ②					

[1-5] 화법

1. 발표 계획과 내용의 일치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 내용의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으로 보아, 발표자는 청중인 학급 친구들이 욕설 사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청중 분석 내용은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발표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욕설을 사용하지 말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발표 내용을 보면 욕을 많이 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와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발표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욕설을 사용하지 말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 질문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이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의미의 교섭 과정이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임을 바탕으로,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질문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발표 내용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으로 보아,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

설 사용 문제에 대한 책임이 청소년에게만 있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청소년들이 욕설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에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라고 한 질문은 발표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질문으로,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은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17.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인 ‘습관이 되어서(25.7%)’와 ‘남들이 사용하니깐(18.7%)’이 아닌 스트레스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은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발표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예시로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여가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라는 질문은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경로가 어디이고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은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안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방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이라는 대화 형식을 통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은영’은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는, 지금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말하기 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은영’은 발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은영’이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영’에게 발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③ ‘지호’의 ‘다 외울 정도로 준비 많이 했잖아’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발표 연습과 준비를 충분히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은영’에게 즉흥적인 대처만 믿지 말고, 충분한 연습과 준

비를 통해 발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④ ‘은영’의 ‘지난번에도 너무 긴장해서 완전히 망쳤는데.’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지난번의 실수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은영’에게 과거의 실수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⑤ ‘은영’의 ‘이번 발표를 잘하면 곧 있을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이 발표가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영’에게 발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자신을 부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의사소통의 요소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화의 내용을 통해 ‘화법의 성격’, ‘화법의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애긴 안 꺼내요.’라는 말은, 부모님과과의 진로에 대한 갈등 같은 화제에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관심 여부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는 이메일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의 좋은 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구두 언어가 문자 언어에 비해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② ㉢의 ‘만화가인 삼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는 대학에 다니는 선배보다 만화가인 삼촌에게 들으니 더 확신이 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③ ㉣의 ‘좀 전 복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애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는 지하철 보다 강변에서 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도 잘 되고 좋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대화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④ ㉤의 ‘회수권 이요? 회수권이 뭐죠?’는 과거에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지칭하던 용어인 회수권을 요즘 학생인 민수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 공감하며 말하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삼촌의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라

는 말은, 뒤에 이어지는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에서 알 수 있듯이, 삼촌이 자신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삼촌의 이 말은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삼촌의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은 말하기를 망설이는 민수가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준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라고 할 수 있다. ③ 삼촌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는 앞에서 민수가 한 말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는 삼촌이 민수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라고 할 수 있다. ④ 삼촌의 ‘전혀 그렇지 않아’는 민수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는 민수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라고 할 수 있다. 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민수의 말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비언어적인 표현 활용하기’라고 할 수 있다.

[6-10] 작문

6. 작문 상황에 따라 구상하기

정답해설 : 작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는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등이다. 제시된 신문 기사에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담쟁이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 있다. ④는 신문 기사에 제시된 정보인 담쟁이의 ‘질긴 생명력’에 주목하여, 담쟁이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이로부터 새로운 주제인 ‘역경을 극복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예상 독자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로 뚜렷이 제시했으며, 글의 목적을 ‘정보 전달’에서 ‘설득’으로 바꾸었으므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예상 독자를 ‘시민’으로 제시하고, 글의 목적을 ‘호소’로 바꾸었으나, 담쟁이가 유해 식물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② ‘담쟁이가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신문기사의 정보를 활용하였고 글의 목적을 ‘비판’으로 바꾸었으나, 담쟁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예상 독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새로 전학 온 친구’로 예상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담쟁이와 한국 전통 건축이 조화를 이룬다.’는 내용은 신문 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니며, 글의 목적도 ‘정보 전달’로 동일하다. ⑤ ‘담쟁이가 도시 공해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담쟁이에 대한 관점을 바꾼 것이고, 글의 목적도 ‘설득’으로 바꾸었지만, 신문 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며,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7~8]

7.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정답해설 : 글쓰는 이는 글을 쓰기 전에 작문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은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부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기부 참여 유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이 드러났으므로, 서술 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조사 결과’에서 기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사 결과’에서 기부 참여도가 저조한 원인이 기부 참여 유형을 몰라서이지 ‘무관심’이나 인식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결과 분석’에서 학생들의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학생들이 특정 기부 유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결과 분석’에서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정보 부족’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천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실천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정답해설 : <조건>에 따라 ‘현상’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은 현실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내용이 글의 시작에 와야 한다. ④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선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서 의문형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발히 기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례는 ‘현상’을 제시하기에 부적절하며 글쓰는 이가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② 학생들이 남들을 따라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부 참여도가 저조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 ③ 기부 참여도가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기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글쓰기 계획’에서 제시된 문제의식과 다르다. ⑤ 기부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부 활동 저조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며 설의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9~10]

9. 의도에 맞는 글쓰기 전략 활용하기

정답해설 : 학생은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라는 작문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해서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상황에서 학생은 중심 내용 즉 주제를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으로 정하고 글을 쓰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예상독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글의 목적은 그림으로부터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다양한 수사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글에 제시된 내용은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므로 공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⑤ 그림을 보고 글쓰기를 수행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정답해설 : 글쓰는 이는 작문의 과정, 글의 맥락, 통일성과 응집성 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를 수행한다. ㉠ ‘오히려’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나, 고쳐 쓴 ‘그런데’ 역시 적절하지 않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므로 ‘따라서’가 적합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앞 문장의 내용과 같으므로 불필요하다. ② 동일 인물에 대한 지칭을 통일하는 것이 글의 이해를 돕고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글은 중심 내용 또는 주제를 향해 집약되어야 한다. ㉡은 불필요한 문장으로,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당황하다’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뜻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11~15] 문법

11. 음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어 음운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리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ㄱ)은 국어 음절(‘발’)을 이루는 초성(ㅍ), 중성(ㅌ), 종성(ㄷ)이 음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달’, ‘불’, ‘밥’)로 실현되며, 이에 따라 의미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에서 초성 ‘ㅍ’이 ‘ㄷ’, ‘ㅅ’ 등으로 바뀔 때 따라(‘달’, ‘살’) 다른 단어가 된다. (ㄴ)의 ‘눈’은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을 의미하며,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일부인 눈[眼]’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도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③ (ㄱ)과 (ㄴ)은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음운이 바뀌거나 장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④ 자음의 경우 초성과 중성에 사용되며,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ㄱ)이나 (ㄴ)은 음운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12. 목적어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의 쓰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문항이다. ㉠은 ‘먹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빵을’이 사용되었다. ㉡은 ‘마실까?’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대신 보조사 ‘나’가 결합된 ‘우유 나’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 ㉡의 경우 목적어가 생략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므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먹었다’와 ‘보시고’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빵을’과 ‘모습을’이 사용되었다. ② ㉠에서 목적어 ‘빵을’은 주어의 뒤,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서는 목적어 ‘모습을’이 주어인 ‘어머니께서’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④ ㉠에는 목적어 ‘빵을’이 사용되었으나 ㉡은 목적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로만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⑤ ㉠의 ‘빵’ 뒤에는 ‘을’이, ㉡의 ‘우유’ 뒤에는 ‘를’이 사용되고 있다.

13. 사전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단어의 의미 및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을 이용하여 의미 및 관계를 탐색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동음이의어인 ‘치다’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유의 및 반의 관계, 의미에 적절한 다른 용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문항이다. ⑤의 ‘농부가 밭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의 ‘치다’는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거나 옮기어 깨끗이 하다’의 의미로 ‘치다1’이나 ‘치다2’와는 동음이의어로 사용된 사례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독립적인 표제어로 사전에 기술된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② ‘때리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의 의미이다. ③ ‘맞다’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의미로, ‘때리다’의 의미를 지닌 ‘치다’와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④ ‘치다2’의 ㉠은 ‘가축이나 가끔 따위를 기르다’로, ‘아이’는 가축이나 가끔이 아니기에 ‘치다’를 사용할 수 없다.

14.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③의 ‘구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을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 목마르다.’는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잘 하다’의 의미에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16~30] 독서

[16-18] 인문, ‘세 역사가-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티우스’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가의 역사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례가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고대의 세 역사가의 평가와 입장 차이를 예로 들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세 역사가가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대조와 비교

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역사가의 역사 해석에 미치는 역사적 환경의 영향

16.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4문단에 의하면,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인 1세기에 활동을 했고, 아리아노스는 한 세기가 더 지나 로마 제정이 확립된 시기에 활동을 했다. 그러므로 아리아노스와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 시대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3문단에 의하면, 플루타르코스는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으로, 고향에서 신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③ 이 글의 3문단에서 아리아노스가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에 사망하였고, 아리아노스는 1~2세기에 활동한 역사가들 중의 하나이므로, 그가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이 글의 3문단을 통해 플루타르코스가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임을 알 수 있으나, 4문단에서 보듯이 쿠르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 ⑤ 이 글의 1문단에서 고대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여러 전설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대 저술가들이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아 ‘찬미의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정확하지 않다.

17. 글쓴이의 집필 의도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1~2세기에 활동했던 세 역사가들이,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가졌던 평가와 입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세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이었다. 전자는 속주 출신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고,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배자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했으며, 이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일관된 호의적 평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후자 역시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비판적인 묘사를 삽입하여 반감을 내비치는데, 이는 그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 당했던 곳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쿠르티우스는 자신이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기에, 절대 권력을 행사한 알렉산드로스에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글쓴이는 역사가의 역사 해석은 개인적 가치관과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후세에 활동했던 세 역사가들

의 그에 대한 평가와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다. 이 글만으로 역사가들이 그들이 살았던 당대의 사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세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역사가가 서술 대상과 거리를 두고 냉엄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 의하면 역사가는 역사적 대상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며,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⑤ 동일한 대상이라도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역사가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에 있음을 밝히는 데, 이 글의 서술 초점이 있다. 역사 서술의 목적과는 별 상관이 없다.

18. 구체적 사례의 처리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페르시아 정복 이후의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서술인데, ‘그가 예전에 가졌던 자제력과 금욕’을 잃고 ‘거만과 방탕’으로 변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이 글의 2문단에 나오는 ‘알렉산드로스의 천품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겸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알렉산드로스를 비판한 쿠르티우스의 평가와 연결할 수 있다. (나)는 식사 때 알렉산드로스가 보여준 인자함과 명량함에 대해 서술하면서도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자기 자랑에 빠졌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 글의 2문단에 나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친다.’는 플루타르코스의 평가와 연결할 수 있다. (다)는 알렉산드로스가 클레이토스를 살해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술자리에서의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명백한 잘못을 말하면서도 클레이토스가 왕에게 무례했다는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2문단에 나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호의적이였다는 아리아노스의 평가와 연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19-21] 기술, ‘스마트폰의 위치 파악’

지문해설 : 이 글은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그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치 추정 범위를 줄이기 위해 기지국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전파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단순히 전파의 세기만으로는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 어렵다.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해, 수신된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주제] 스마트폰의 위치 파악 방법

19. 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이상적 상황에서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송신기)과 기지국(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 내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②, ④ 3문단의 ‘대기의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지국에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 5문단의 ‘기지국과 주변 건물의 배치 등의 요인 때문에 스마트폰의 위치 파악에 오차가 나타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특정 기지국 주변의 건물 배치에 따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는 GPS를 주로 이용하여 찾아내지만 ‘실내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알아낸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새로운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전파를 두 기지국에서 수신했다는 것은,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문단에서 보듯이,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범위가 일정하다면, 두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치 추정 범위는 넓어질 것이고 멀수록 그 범위는 좁아질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2문단에 의하면, 통신사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한 지역이 서로 중첩되게 기지국을 설치한다. 스마트폰의 위치 범위 추정은 기지국의 전파 수신 가능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중첩이 없다면 기지국 사이를 이동할 때 통화가 끊어질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에 따르면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다르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두 기지국의 중첩된 수신 가능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떤 기지국, 즉 전파의 세기가 더 크게 측정된 기지국에 더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 ⑤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된다는 것은, 기지국들의 수신 가능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에 그 스마트폰이 위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 기지국들의 수신 가능 영역 간 중첩 영역이 좁을수록,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줄어들고 그 정밀도는 높아지게 된다.

21. 원리의 이해와 상황 적용

정답해설 : 6문단에 의하면, ‘기지국이 세 개인 경우’, 각 기지국에서 수신한 스마트폰 전파의 비율들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과의 상대적 거리의 비율이 같아지는 지

점은 한 점이다. <보기1>에서 방해물이 없는 평지, 동일한 길이의 변을 가진 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한 기지국, 동일한 수신 가능 거리 등은 세 기지국의 전파 전달 환경이 동일함을 의미한다(이는 4문단의,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은 동일하다.’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시각에 한 스마트폰에서 송신된 신호가 각 기지국에서 동일한 세기로 수신되었다면, 스마트폰은 세 기지국의 중심들(A, B, C)로 이루어진 정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5문단의,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스마트폰은 수신 가능 지역이 겹치는 영역 내에서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정한 것은 <보기2>의 (가)이다.

정답 ①

[22-24] 사회, ‘법률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법률 해석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법률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반대 해석’은 법률 문구에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이고, ‘확장 해석’은 법률에 쓰여 있는 문구를 본래 의미보다 넓혀서 해석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유추 해석’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률 해석을 할 때는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것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22. 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형식적 특성으로서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반대 해석, 확장 해석, 유추 해석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을 비교한다는 ①이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는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아니며, 이 글에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도 않다. ③ 문제를 상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떤 대안을 찾고 있지도 않다. ④ 법률 해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단계적 추론도 없으며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⑤ 법률 해석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을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23. 글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5문단의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법률 해석을 할 때 직관적 통찰을 통해 타당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진술은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법조문은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법률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될 때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5문단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는 진술로 보아 형법에서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5문단 세 번째 문장인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는 진술에서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성격이 법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법조문은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법률 해석은 추상적인 법률과 구체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4. 관점의 적용

정답해설 : ‘반대 해석’은 법률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ㄱ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보고 ‘대문 앞이 아닌 곳’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주차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반대 해석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ㄴ은 ‘자동차가 아닌 것’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대문 앞에 자동차가 아닌 것은 세워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역시 반대 해석을 한 것이다. 따라서 ②가 반대 해석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ㄷ에서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냐’를 언급한 것은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과 담 쪽에 주차하는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길을 막는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추 해석을 한 것이다. ㄹ은 ‘대문을 드나드는 데 불편해서 붙였다 고 봐야 해’라는 진술로 볼 때 진술의 배경이나 의도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ㄹ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는 진술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

[25-28] 과학, ‘태양의 에너지’

지문해설 : 이 글은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간 태양의 구성 성분이나 에너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고온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

소 원자핵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의 압력에 의해 중심부에서 멀어졌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중심부로 들어온다. 이처럼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통해 태양은 안정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주제] 태양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생성되는 원리

25. 메모하며 읽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독서의 절차 중 ‘읽는 중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2문단에서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불변의 제5 원소설’과 ‘불덩어리설’이라는 가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인 ‘신성’의 발견으로 별이 불변한다는 통념은 무너지게 됐다. 따라서 신성의 관찰로 ‘제5 원소설’이 인정됐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보면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덩어리설이 흑점의 관찰에서 제안됐다고 볼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를 통해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 있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를 통해 핵분열 에너지설은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정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 마지막 문장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에서 핵융합 에너지설이 태양의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판단의 근거 추리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㉔은 온도가 낮아지면 핵융합 에너지 줄어든다고,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 수소가 태양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다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압력으로 인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고 보는 ⑤는 ㉔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섭씨 5,500도로 가열될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양에서 유사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것이 참이 되려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②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이 참이 되려면,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③ ㉔에서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며, 이 질량 결손으로 인해 핵융합 에너지가 생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이 줄어들면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④ 반발력을 극복하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을 해야 융합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핵들은 본래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27. 개념의 창의적 적용

정답해설 : 태양은 중력으로 수소 원자핵을 끌어 당겨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며,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의 압력이 높아지면 수소는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수소가 나간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중심부의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어 수소가 다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중요한 힘은 수소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핵융합 장치’도 이처럼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력과 유사하게 수소 원자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보면 원자핵의 핵융합은 천만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데,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방사능 물질은 핵분열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핵융합 장치는 대체 에너지 기술로 수소 원자핵을 사용하는 장치이다. ④ 4문단에서 태양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6문단에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 어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발열하다’와 ‘발열되다’는 모두 자동사로만 쓰이고, 나머지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관통하다’는 ‘과녁을’과 쓸 수 있고, ‘관통되다’는 ‘화살에 의해’와 쓸 수 있다. ② ‘보존하다’는 ‘문화재를’과 쓸 수 있고, ‘보존되다’는 ‘문화재가’와 쓸 수 있다. ③ ‘완공하다’는 ‘건물을’과 쓸 수 있고, ‘완공되다’는 ‘건물이’와 쓸 수 있다. ⑤ ‘개편하다’는 ‘체제를’와 쓸 수 있고, ‘개편되다’는 ‘체제가’와 쓸 수 있다.

[29-30] 독서, 읽기 과제 수행 중 사고 과정

29. 독서 방법 이해

정답해설 : 독서의 수행 과정에서 추론적 독해를 할 때, 독서의 목적, 독자의 배경 지식, 독서의 상황 등을 활용하여 읽은 내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재구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지’와 ‘승수’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지’가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한 것이다. ② ‘승수’는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뜻은 아직 모르겠고’ 등 스스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다. ④ ‘예지’는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읽기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승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 가다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⑤ ‘예지’는 책을 후배들에게 소개한다는 과제를 분석하고 나서 세 권의 책 중에서 후배들이 읽기 쉬운 책을 선정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승수’는 단순하게 첫 책부터 읽기를 시작하고 있다.

30. 문제 해결 독서

정답해설 : ‘승수’는 현재 독서 수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어나 문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적인 독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나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승수’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독서는 ‘추론적 독해’ 과정으로 글 안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승수’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승수’는 현재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려고 했지만 세부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글의 주제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뒷부분을 예측하는 독서는 ‘추론적 독해’ 과정인데, ‘승수’는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예측하며 읽기를 통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는 읽기는 ‘감상적 독해’ 과정인데, 이는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반응할 때 가능한 독해이다. 현재 ‘승수’는 기본적인 독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1~45] 문학

[31-34] 고전소설 - 김만중,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버리고 장희빈을 맞아들인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김만중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명나라 가정 연간의 금릉 순천부이다. 이곳에 사는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한림 학사가 된다. 그는 재덕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사씨는 9년 동안이나 잉태하지 못한다. 사씨는 후사를 잇기 위해 남편에게 후실을 얻을 것을 권유한다. 교씨를 후실로 맞이하여 그녀에게서 아들 장주를 얻는다. 얼마 후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게 된다. 이후 유현수는 석 낭중의 조언을 받아들여 동청을 서사로 맞이한다. 교씨는 십랑, 동청 등과 모의하여 온갖 모함을 하여 사씨를 내쫓게 한다. 정실 부인이 된 교씨는 동청과 공모하여 유 한림을 모함하여 유배를 당하게 만든다. 유한림을 모함한 공로로 관리가 된 동청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자신과 가정의 불행이 교씨와 동청의 흉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씨와 다시 만나 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주제]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31.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 함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과 달리 배치하여 구성상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모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역전적 구성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유한림의 정실 부인인 사씨와 첩인 교씨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다. ②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보이고, 마지막 단락의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에서 서술자적 개입하여 안타까움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사씨와 교씨가 유한림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대결은 전형적인 삼각관계이다. 교씨가 악행을 저지르는 반면에 사씨는 규방 여인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⑤ 십랑의 계책이 마지막 단락에서 장주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사건이 진전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인물의 제시 방법

정답해설 : [A]에서는 ‘서사(書士) 동청’이 살아온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그의 바르지 못한 성품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지문에는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인 경우가 많다. ② 이 지문에는 ‘동청’의 외모를 ‘풍모가 반듯하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씨와 유 한림의 갈등은 동청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다. ③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사씨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마지막 문장의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처럼 직설적이다. ④ 이 지문에서 인물의 미래는 작중 인물의 시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복선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3.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

정답해설 : ‘석 낭중’이 ‘유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것은 ‘동청’의 정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석 낭중’의 행동은 자신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긴 행위이기 때문에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사씨’ 자신이 도덕적으로 고매한 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를 멀리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덕성이나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의 분위기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유한림’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사씨’의 지혜로운 판단도 여자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④ ‘교씨’가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축첩의 관행과 폐단을 알 수 있다. ⑤ ‘방자’ 등의 주술 행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의 효능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의도 파악하기

정답해설 : ㉠의 진술은 성향이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취지이다. 속담으로 이를 표현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뜻으로 사씨가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이쪽 편에서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상대 편도 반응을 좋게 한다는 말인데, 사씨의 발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다른 사람도와 구하면 혹 제 일이 잘 안될까 봐 꺼린다는 뜻인데, 사씨는 남편에게 거리낌 없이 충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이 장면에서 사씨와 유한림은 남존여비의 관념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므로 서로의 처지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35-36] 고전시가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지문해설 : 이 시조는 ‘어부(漁父)’의 사계를 한자어와 우리말을 적절히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조의 화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과 풍류를 추구하는 ‘고기잡이’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지문에 실린 춘(春)4, 하(夏)2, 추(秋)2, 동(冬)8은 각각 해당 계절의 어촌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어부가 즐기는 어촌의 풍류(風流)

3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조의 화자는 어촌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주는 흥취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시조에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여음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규칙적으로 나온다. ③ 시조는 모두 4음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조 역시 4음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조에서 ‘바다’는 화자에게 합일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세계로 표현되어 있다. ⑤ 이 시조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고루 사용되어 있다.

36.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조의 ‘추(秋)2’는 가을을 맞이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가을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노는 계절이다. 그의 눈에 비친 살진 ‘고기’들은 그의 이런 느낌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春)4’에서 ‘빠꾸기’와 ‘버들숲’은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이 전체에서 전혀 애상감을 느낄 수 없다. ② 세속에 무심한 ‘백구(白鷗)’와 시적 화자는 누가 누구를 좇는지 모르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화자의 눈에 비친 ‘술’의 ‘씩씩함’은 절개를 지키는 충직한 신하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절개를 부각시켰을 뿐이고, 이에 대해 갈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⑤ ‘파랑성’을 속세로부터 어부의 삶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37-39] 현대소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에 실려 있는 11편 중의 하나이다. 이 소설에서

원미동은 삶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간인 동시에 소시민들의 정감어린 삶을 가감 없이 보여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원미동 시인은’ 일곱 살짜리 어린 소녀의 눈으로 원미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형제 수퍼’의 ‘김반장’의 행동 양식이 소시민 근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몽당씨에게 이유없이 가해지는 폭력은 군사 정권과 산업 사회가 낳은 모순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모순된 세태에 대한 비판과 인간적인 삶에 대한 추구

37. 추론적 사고(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그때 나는’,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A] 부분은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이 작품은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소설이다. ②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원미동 시인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시종 일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찰자 시점에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④ ‘나’가 어떤 소리를 들었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제삼자의 객관적인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를 들었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을 뿐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38.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성격)

정답해설 : 이 작품에 등장하는 ‘김반장’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몽달 씨’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한 나머지 외면해 버린다.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이해타산에 기반하여 ‘몽달 씨’와의 인간적 관계마저 외면해 버린 것이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이해타산에 급급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해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태를 공정하게 파악하는 중립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 ③ 김 반장은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중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이기적 행동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9.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원미동’은 작가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변두리의 일상적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동네의 풍광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 변두리인 것처럼 이곳 사람들의 삶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의 전형이다. 이들의 삶은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대적 배경이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된 뒤인데도, ‘흑백텔레비전’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에서 도시 변두리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공단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대도시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④ ‘몽달’씨의 ‘비명’은 억압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몽달씨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경제 개발 시기에 권력으로부터의 폭압을 우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42] 현대시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지문해설 : 이 시는 암울한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낯설과 씨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가 당신이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당신과 ‘나’가 엮은 꿈이 하나의 비단이 된다면, 추운 겨울을 능히 이겨낼 뿐 아니라, 외롭고 긴 기다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주제] 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꿈을 하나로 엮기를 바라는 마음.

40. 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시에서는 ‘~리’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다면’ 과 ‘~끝에’의 반복적 사용으로 각운적 효과를 얻고 있다. ④ ‘~다면’과 같이 문장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아서 독자에게 시의 의미를 음미해 보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⑤ 수미상관이란, 시의 앞뒤가 비슷한 형태를 띄는 것을 말한다. 이 시는 ‘어느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으로 시작하여, ‘어느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으로 종결하여 유사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얻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기반한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시는 서로 그리워하는 남녀가 하나의 꿈을 엮어가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의 꿈을 엮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문제의 [보기]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시의 그리움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의 해석에 따르면,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 그리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보다는 (나)가 역사적 전망에 연결된다는 ③은 이러한 관점에 부합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시에서 ‘꿈’은 그리워 하는 두 존재가 서로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② ‘슬픔’의 경우에 (가)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별의 슬픔이고, (나)에 의하면, 분단에서 비롯된 민족적 정한으로 볼 수 있다. ④ ‘겨울’은 그리움을 만들어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억압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사랑’은 시적 화자가 대상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므로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다.

42. 창의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표현된 ‘손을 주고’는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롭고 긴 기다림의 상태(㉡)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두 존재가 서로의 꿈을 엮어서 만들어 갈 목표인 썸이므로,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과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③ ㉠ ‘손을 주고’와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서로를 포용하거나 공감하는 마음 자세를 표현한 것이다. ⑤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는 화자가 바라는 바인 ㉠의 ‘한 폭의 비단’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45] 시나리오,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불치병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30대 사진사가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는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해 간다. 그런데 그런 남자의 삶에 갑자기 건강하고 활기찬 20대 주차 단속원이 등장한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남자와 여자는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지만, 남자는 선불리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여자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자는 죽고, 여자는 갑자기 사라진 남자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한다. 이 작품은 주제와 표현 면에서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작가는 죽음이 공포나 고통만을 수반한다는 관습적 사고를 깨고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소중함을 죽음을 맞이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 표현 면에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사를 줄이는 대신에 행동과 표정으로 그들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인물이 지닌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효과가 있다.

[주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자의 애틋한 사랑과 죽음을 응시하는 따뜻한 시선

4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에는 ‘정원’과 ‘다림’이 서로에게 점차 서로에게 끌리는 상황을 연속된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특별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진사 ‘정원’은 사진을 인화하러 온 ‘다림’에게 끌리게 되고, ‘다림’도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는 ‘정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③ 사진관, 상가 등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다. ④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된 각 사건들은 ‘정원’과 ‘다림’이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인물의 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4. 시나리오의 촬영 기법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면 속 ‘다림’의 모습이 보이면서, 화면 밖에서는 ‘정원’의 목소리는 들린다. 이처럼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통해 화면 밖에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인물이 화면 안의 인물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 남자 옷을 바라보는 ‘다림’의 행동은 ‘다림’이 ‘정원’에서 선물을 하고 싶을 정도의 호감이 생겼음을 암시한다. ③ ㉡은 ‘다림’이 ‘정원’을 위해 그의 사진관을 청소할 정도로 ‘정원’을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어지러운 풍경은 ‘정원’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⑤ ㉣에서 ‘정원’과 ‘다림’이 어색해하며 사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45. 장면의 영화화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S#81에서 ‘정원’과 ‘다림’은 동시에 뛰기 시작하는데, ‘정원’은 곧 숨을 헐떡이며 멈춘 반면에 ‘다림’은 ‘정원’이 멈춘 뒤에도 혼자서 운동장을 뒀다. 따라서 이 장면은 병든 ‘정원’과 건강한 ‘다림’의 상반된 상태가 부각되도록 영상화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장면은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장면의 초점은 ‘정원’과 ‘다림’의 상반된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조연들을 출연시킬 필요는 없다. ④ ‘다림’도 달리기 끝자라 헐떡이며 ‘정원’에게 다가온다고 했다. ⑤ 이 장면에는 두 인물이 어떤 심리를 지니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